

## 하나님과 멀어진 나

1.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(창1:8). 거기에는 먹기 좋은 나무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. 어떤 명령이었나요?

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 
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
( )의 열매는 먹지 말라  
네가 먹는 날에는 ( ) 하시니라  
(창2:16~17)



2.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.



**[뱀]**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(창3:1)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(창3:3~4)

**[하와]**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...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

**[아담]**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

- 1)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하나요?
- 2)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.



**선악과를 먹는 것과 죄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?**

성경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. 이는 선악과가 독을 가진 열매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, 그대로 행하길 바라십니다. 즉 '죄'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. 히브리 원어에서는 '하타', 헬라어로는 '하말티아'로 죄를 '빗나갔다'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. 죄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행동을 말합니다.